

‘40일의 기적’ 아마존 4남매 모친 “살아 나가라” 유언

“비행기 추락 후 나흘간 생존” 큰딸과 대화한 아버지 전언 4남매 첫 발견 ‘영웅견 윌슨’ 실종...군 “수색 작전 안 끝나”

아마존 정글에서의 비행기 추락 사고 후 40일이 되는 날 극적으로 생존한 4명의 콜롬비아 아이들은 함께 사고를 당한 엄마와 며칠간 지냈고, ‘살아 나가라’는 엄마의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마누엘 라노케는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아직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다”면서도 큰딸과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아이들의 어머니는 추락 이후 크게 다쳤지만, 나흘 정도 살아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말미인 레슬리 무쿠투이(1

3)에게 “동생과 함께 살아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라노케는 전했다. 그 외의 추가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엘리오폴 등 현지 매체는 덧붙혔다.

아이들의 모친은 지난달 1일 비행기 추락 사고 이후 현장을 확인한 군 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마누엘 라노케는 “아이들 상태가 좋아지면 직접 (국민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저는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과장하거나, 지어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탑승 증세와 벌레 물림, 영양실조 증상 등을 보인 4남매는 현재 수

도 보고타 군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아이들의 할아버지는 찢기거나 썩기 일보 직전인 옷을 입은 채 구조된 레슬리가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던 (레슬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아마존 정글에서 4남매를 극적으로 찾아낸 콜롬비아 군 구조팀은 여전히 열대우림 속에 남은 채 ‘에스페란사’(스페인어로 희망이라는 뜻) 구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방이 묘연했던 아이들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조대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국방부는 이날 언론 설명자료와 공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취를 감춘 윌슨을 찾아내기 위한 작전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는 이번 수색



아마존 경비행기 추락사고 40일 후 극적으로 생존한 콜롬비아 4남매의 아버지 마누엘 라노케가 11일(현지시간) 보고타의 한 병원 입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작전 지휘관인 엘데르 히랄도 합동특수 작전사령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군은 그러면서 “아무도 뒤에 남기지 않는다는 지상명령을 완수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실제 윌슨은 에스페란사 작전으로 이를 붙은 콜롬비아 원주민 4남매 구조 작업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콜롬비아

군은 강조했다.

엘에스펙타도르와 엘리오폴 등 현지 매체는 윌슨이 아이들을 가장 먼저 찾아내 한동안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군과 원주민으로 이뤄진 구조팀보다 한발 앞서 아이들의 생존 소식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윌슨은 정작 구조팀이 아이들과 만났을 때 현장엔 없었다고 한다.

수색 작업 초반에 무른 땅에서 아이들의 발자국을 발견해 구조팀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한 것도,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를 찾는 데 도움을 준 것도 윌슨이었다고 현지 매체는 덧붙혔다.

윌슨을 조련한 크리스티안 다비드 라 쿠아란은 소속 부대에 윌슨과의 강력한 유대감을 강조하며 “저는 윌슨을 찾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엘에스펙타도르는 전했다. /연합뉴스

日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설비 시운전 시작

현지 어민들 반대에도 방류 초읽기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12일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오염수를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고 지역 민영방송인 TV-U 후쿠시마가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약 2주간의 시운전 기간에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바닷물과 섞어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면서 방류 시설의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 방류 장치가 정상적으로 정지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따라서 시운전 때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방류되지 않는다.

도쿄전력은 앞서 지난 4월 25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약 1천30m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으며, 이어 이달 들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터널 안으로 약 6천의 바닷물을 주입했다.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오염수 해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 방침인 가운데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12일 시작했다. 사진은 오염수가 저장된 후쿠시마 제1원전.

양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현지 어민들은 일본 정부에 거듭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난 10일 원전 소관 장

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회담 후 “회담은 평행선이다. 방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제재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 소관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

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방류 설비 공사가 끝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르면 이달 중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하노이 부근서 교민 22명 탄 버스 추락

베트남 수도 하노이 부근에서 산행객들을 태운 버스가 도로 아래로 떨어져 교민 22명이 다쳤다.

11일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수안선 국립공원 탐방을 마친 등산객들을 태운 버스가 하노이 부근에서 도로 밑으로 떨어진 뒤 미끄러져 내려갔다.

당시 버스에 하노이 인근 박닌성의 한인 산악회원 22명을 비롯해 총 30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한 교민 전원 이 골절상 등을 입었고 이중 3명은 크게 다쳤다.

부상자들은 하노이의 한인 밀집 지역인 미당의 홍육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베트남 공안은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다행히 생명의 위중한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수단 군벌 ‘24시간 휴전’ 끝나자마자 다시 충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박 속에 처음으로 24시간 동안 휴전 약속을 지킨 수단 군벌이 휴전 종료와 함께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목적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휴전이 종료되자 수도 하르툼과 인근 도시 움두르만 등에서 총성과 포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르툼 동부에 위치한 샤프그 엘 나일에서는 포 사격이 있었고, 하르툼 중심가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

하르툼에서도 다른 격전지인 서부다

르푸르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곡창지대 코르도판에서는 군인들이 도처에 배치된 가운데 약탈이 이어지고 있다.

알텔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수단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의 준군사조직 RSF는 민정인양 후 조직 통합과 통합 조직의 지휘권 문제로 갈등하다가 지난 4월15일부터 무력 분쟁에 돌입했다.

양측의 분쟁 과정에서 1천800여명이 죽고 5천여명이 부상했으며, 14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